

2024년 춘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 지속 가능한 외교를 위한 열린 공유 대사관에 대한 연구

- 일본, 핀란드, 덴마크, 세르비아, 나이지리아 및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Open and Shared Embassies for Sustainable Diplomacy - Focusing on Cooperation between the Embassies of Japan, Finland, Denmark, Serbia, Nigeria and the Dominican Republic -

○오 한 나\*                      김 소 영\*\*  
OH, Han-nah                      Kim, So Young

### Abstract

There are a total of 114 embassies in Korea, but some are stand-alone buildings while some are renting space in an office building. 61 countries, more than half, unfortunately, do not own their buildings but share a building. For instance, there are 7 embassies in one building. Due to financial reasons, these embassies cannot afford to have their independent buildings. Nowadays, shared spaces are prevalent, and we should rethink of how to design a future embassy. To promote better diplomacy and collaboration with different countries, my research and project examines how embassies can share spaces to create a more sustainable future, in the case of the embassies of Japan, Finland, Denmark, Serbia, Nigeria, and the Dominican Republic.

키워드 : 대사관, 건축유형, 공공외교, 복합시설, 공공공간

Keywords : Embassy, Architectural type, Public diplomacy, Complex facility, Public space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한국에는 총 114개의 대사관이 존재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해당국의 영사관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하나의 건물을 독점하는 경우와 오피스 빌딩의 한 부분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이다.

대사관은 서울 안에서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 위치하고 있다. 현재 절반 이상인 61개국에 하나의 빌딩을 공유하여 사용 중이며 하나의 빌딩에 최대 8개국까지 존재한다. 이들은 독립된 건물 또는 개선된 시설을 원했으나 재정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교공관은 그 나라의 외교 창구로 그 나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이는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대표함과 동시에 문화를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그 나라의 경제력과 역사 문화를 구현한다(김송길, 2020).\*\* 이는 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해당 나라의 영향력을 이르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볼 수 있다(김도민, 2012).\*\*\* 또한,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외교 방식의 변화를 인지하고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공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원수빈, 2010).\*\*\*\* 그러나, 계속해서 재외공관이 신축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보안성을 확보해야 하기에 재외공관 건축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공외교를 위해서 닫힌 대사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에 동의 또는 긍정적 의견을 보여준 나라는 일본, 핀란드, 덴마크, 세르비아, 나이지리아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6개국이다.

### 2. 대사관 현황 분석

- 1) 중국 공관 실내공간에 관한 연구
- 2) 1948-50년 주한미대사관의 설치와 정부활동
- 3) 공중외교(Public Diplomacy)의 이론과 실행 연구
- 4) 재외공관 건축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 한양대 학사 졸업

\*\*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ohannah5@hanyang.ac.kr](mailto:ohannah5@hanyang.ac.kr))

이 연구는 2023년도 저자의 졸업 설계작품 결과의 일부임.

## 2.1 대사관과의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 다른 대사관을 설계하기 위해 직접 해당 대사관을 방문하여 공유 대사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인터뷰 자료이다. 대상자는 일본, 핀란드, 덴마크, 세르비아, 나이지리아, 스위스로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사관은 재외공관이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여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공간은 한정적이다. 즉, 대사관 공간의 대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국의 외교관들로 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뷰를 통해 현재 대사관의 공간 구성과 근무 시 느낀 장, 단점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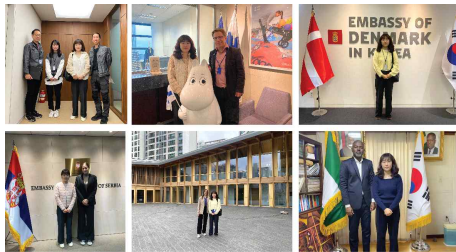


그림1. 대사관 방문

## 2.2 일본 대사관과의 인터뷰

본 인터뷰는 일본 대사관의 일등 서기관, 삼등 서기관과 진행했다. 현재 일본 대사관은 종로구 트윈트리 타워 지상 16층 중 8-11층을 사용 중이다. 8층은 영사과, 9층부터 11층을 대사관의 정치부, 경제부, 문화·공보원, 영사부, 경비부, 회계과가 나누어 근무 중이다. 직원은 100명 정도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비율은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대사관 건물은 재정적 이유로 1층은 임대료를 많이 주는 상황이며 주한 일본 대사관의 내부는 규모별 회의실, 휴게실과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층 빌딩의 일부분을 사용하게 되면서 두터운 외벽으로 구성된 담장 대신 1층에서의 철저한 경계를 통해 보안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이 가까이 위치하지 않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같이 사용하기에 전용기가 있음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또한, 직원 수가 많음으로 인해 부서가 층별로 나뉘게 되어 서로 마주할 일이 없어 대사관 내 소통이 부족하다고 한다.

게다가 일본 대사관의 경우에는 더욱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공공외교에서 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현재 일본 문화원의 임대가 만료됨에 따른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일본 문화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해왔던 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해 이들은 새로 대신할 프로그램으로 시민들도 출입이 가능한 문화홀, 극장 등의 편의시설을 원한다.

## 2.3 핀란드 대사관과의 인터뷰

본 인터뷰는 핀란드 대사관의 참사관과 진행했다. 현재

핀란드 대사관은 광화문 교보빌딩 18층에 위치하며 해당 건물에는 총 5개국의 대사관이 존재한다. 직원은 10-20명 정도로 핀란드인의 비율은 15%를 차지한다.

빌딩 1개 층의 한 부분을 임대하여 사용 중이기 때문에 회의 시 모이기 편리하다고 한다. 하지만 각 외교관의 개인 오피스와 작은 회의실 정도로 구성되어 공유 공간이 협소하며 창문의 개폐가 불가능하고 창문이 없는 회의실과 같은 경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의 시트지를 부착해놓은 상태이다. 이에 반면 핀란드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에는 큰 창문으로 구성된 공간이 존재하며 이는 세미나, 콘서트홀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핀란드 측은 채광이 잘 되며 유동적 사용이 가능한 단독 또는 공유 홀을 원한다. 이에 편의시설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개방적인 입장인 반면 보안이 필요한 공간은 철저한 구분을 원한다.

## 2.4 덴마크 대사관과의 인터뷰

본 인터뷰는 덴마크 대사관의 공관차석, 관계자와 진행했다. 현재 덴마크 대사관은 중구 서울스퀘어 11층에 위치하며 해당 건물에는 총 3개국의 대사관이 존재한다. 직원은 27명으로 덴마크인의 비율은 26%를 차지한다.

빌딩 1개 층의 한 부분을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리셉션이 위치한 공간에 덴마크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공공외교부, 리노베이션 센터, 행정부, 에너지부, 경비부 등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 중이고 대사가 사용하는 방은 글라스월로 형성되어 있어 소통을 극대화했다. 대사관 안에 여러 규모의 회의실이 존재하고, 해당 빌딩 3층에 공유 회의실을 중요한 미팅 시 사용한다.

## 2.5 세르비아 대사관과의 인터뷰

본 인터뷰는 세르비아 대사관의 대사, 인턴과 진행했다. 현재 세르비아 대사관은 중구 부영 태평 빌딩 22층에 위치하며 해당 건물에는 총 8개국의 대사관이 존재한다. 직원은 6명으로 세르비아인의 비율은 50%를 차지한다.

빌딩 1개 층의 한 부분을 임대하여 사용 중으로 각 외교관의 개인 오피스와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카페와 편의 시설이 해당 건물 안에 위치해 편리하며 출입 시 보안 체계에 만족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용화장실 이용과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며 공유 회의실 없이 하나의 협소한 회의실을 사용중이다. 이들은 더 큰 창과 더 많은 조명을 원하며 행사, 회의 및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각 나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작은 박물관 그리고 다양한 식당을 필요로 했다.

## 2.6 스위스 대사관과의 인터뷰

본 인터뷰는 스위스 대사관의 문화부 학술연구원과 진행했다. 현재 스위스 대사관은 종로구에 위치하며 하나의 독립된 건물을 부서별로 나누어 사용 중이다. 스위스 한옥이라 불리는 이 건물은 중정이 존재하는데, 이를 리셉션, 공연 또는 전시회와 같은 행사를 주최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다른 대사관 건물과 비교 시 시민에게 열려 있는 편이다. 하나의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앞서 말한 일본 대사관

과 비교했을 때 보안상의 문제로 크고 높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접근에 대한 절차가 훨씬 까다로운 편이다. 창문이 많아서 자연채광에 유리하나 개폐 가능한 각도가 정해져 있다.

### 2.7 나이지리아 대사관과의 인터뷰

본 인터뷰는 나이지리아 대사관의 공사, 참사관, 행정담당관과 진행했다. 현재 나이지리아 대사관은 용산구에 위치하며 하나의 독립된 건물을 영사관과 함께 부서별로 나누어 사용 중이다.

이 건물은 총 6개의 층이며 2층까지는 주로 시민들이 방문하는 영사부와 이민국이 존재하며 각 외교관의 개인 오피스가 각 층별로 배치되어 있다. 해당 대사관은 주차장에서 경비부에게 보안 과정을 거친 뒤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진입한다. 각 층마다 현관문이 존재하여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계단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맞닿아 있다. 즉, 해당 건물은 출입 과정에 있어 하나의 동선만 존재한다. 이로 인해 외부인과의 동선 분리를 가장 필요로 한다.

### 2.8 대사관 현황 분석

앞선 대사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기존의 협소한 회의실과 부엌, 식당의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시민의 대기 장소 부족에 대한 해결과 동선의 분리를 원하면서도 시민에게 열려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홀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사관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국 재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실행할 수 없고 현재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다.

## 3. 공유 대사관 제안

### 3.1 경제적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공간 구성

공통적으로 대사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들은 사람들이 공유하며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6개의 국가가 유동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경제 측면의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에 시민이 접근 가능한 공간까지 한데 모아 공유 공간의 규모를 키운다.

시민들까지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는 공유 회의실, 공유 주방, 공유 식당 등이 해당된다. 공유 주방과 공유 식당에서는 6개국의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외교관끼리는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늘려 더 나은 외교 및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대사관 내부에서의 공간은 공유 로비가 해당되며, 각국마다 개별적으로 필요하지만 동일한 업무를 보는 비자 공간은 대사관마다 따로 두지 않고 한데 모음으로써 시민들의 대기 공간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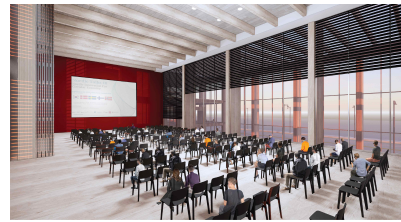


그림2. 공유 다목적 홀



그림3. 공유 회의실



그림4. 공유 주방 및 식당

### 3.2 배치 제안

시민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을 중앙에 배치하고 보안이 필요한 6개의 대사관이 이를 둘러싸 공유 공간으로 모이는 형태를 제안한다.

1층에는 공유 로비만 배치하여 차지하는 면적 최소화를 통해 사이트 앞에 위치한 용산공원 그리고 양옆의 공원의 녹지 연결성을 증과 동시에 공개공지를 형성한다. 1층 중앙에 6개국의 비자 업무만을 위한 공유 공간과 주변에 대기공간으로서의 갤러리, 카페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아트리에에 배치된다. 해당 동의 2층에 위치한 공유 다용도 홀은 대중에게도 열린 연회장으로 사용된다.

중앙에 위치한 공유 공간에 반해 대사관 공간들은 공유 로비를 거쳐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대사관 내 공간들은 인터뷰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기존 면적을 기준으로 직원 수에 비례하여 면적을 산정하였고, 보안도에 따라 위치와 층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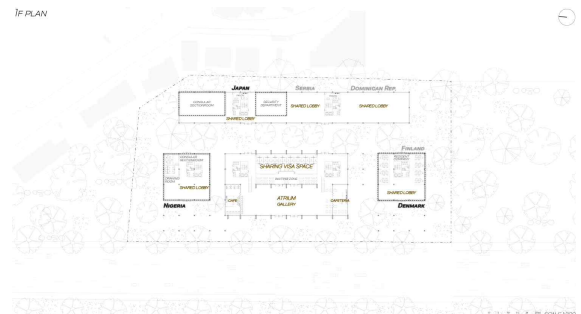


그림5.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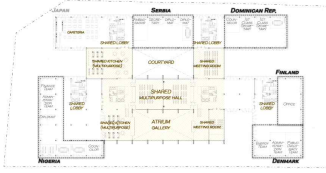


그림6. 2층 평면도

AXON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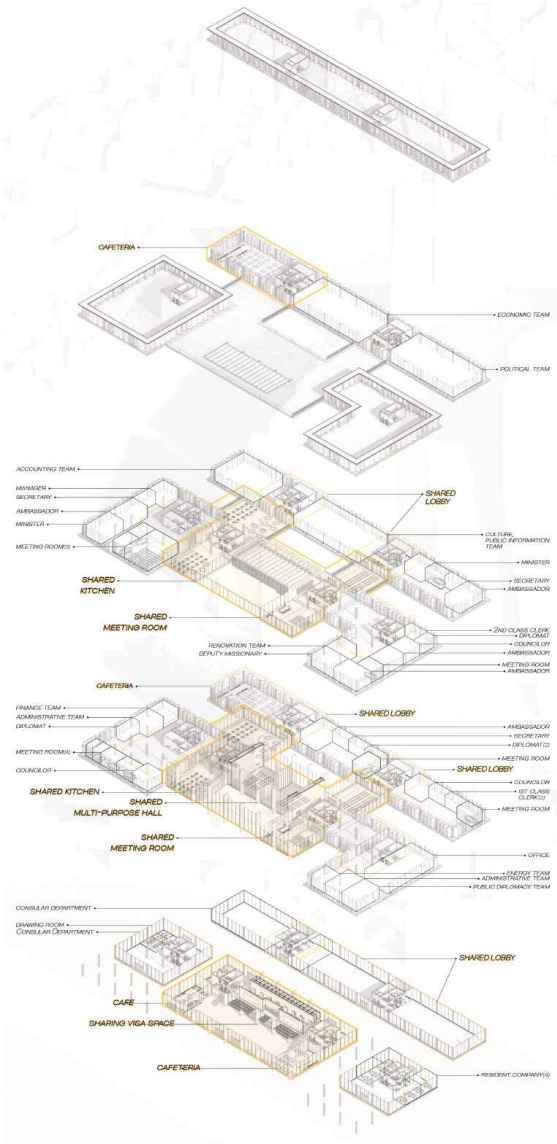


그림7. 각 프로그램의 배치

4. 공유 대사관 디자인 제안

본 연구는 기존의 대사관보다 대중에게 열린 공유 대사관이기 때문에 루버의 각도를 사용해 최소한의 보안을 보장한다. 총 7가지로 분류하여 각 실의 보안 정도에 따라

배치된다. 중앙의 공유 공간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위치한 루버보다 개방감을 주어 구분된다.



그림8. 루버 분석



그림9. 대사관 단면

5. 결론

새롭게 제안한 공유 대사관은 기존의 대사관의 협소한 공간을 개선함과 동시에 열린 공유 공간을 준다. 이를 통해 같은 대사관 직원임에도 건물 안에서 소통이 불가능했던 점에 대한 보완을 넘어 다른 대사관, 시민들까지도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인터뷰 시 대사관의 입장은 이미 개방적이었기에 열린 공유 대사관이 생겨난다면 다양한 국가와의 더 나은 외교 및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송길,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원 실내설계전공, 2020
2. 김도민, 문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원 국사학과, 2012
3. 원수빈, 신문방송학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원 신문방송학과, 2010
4. 이인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원 건축공학과, 2009